



거리두기 4단계 효과보나

코로나 확진 29일 12명→30일 9명→31일 17시 기준 10명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 대다수... 집단감염은 여전

급속도로 확산하던 제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나흘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5시 현재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6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해외 입국자다. 이중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7명이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제주시 대형마트'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

도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21명을 기록한 이후 28일 13명, 29일 12명, 30일엔 9명으로 줄어 들었다.

제주지역 1일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 18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두기 3대 조치인 시간·인원·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며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면서 "이러한 업종엔 그에 상응하는 손실 전액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생활치료 시설이 아닌 자가치료를 하도록 개편하자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이어 "역학조사만 제대로 하면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현명하고 적극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돈 31일 제주시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스크 등을 한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폭염과 사투 벌이는 야외 노동자들의 하루... 마스크·안전모 중무장 "가족위해 전념요"

미화원도 햇볕 맞으며 청소 제주시 "가장 더운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하도록 권고" 올해 도내 온열질환자 60명

폭폭 찌는 듯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외노동자들이 더위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돈 31일 제주시 영평동의 한 공사현장에선 노동자의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와 함께 안전모와 안전조끼, 팔토시, 긴바지, 안전화까지 신고 일을 하고 있었다.

한 근로자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공사자재를 나르고 있었고, 흐르는 땀을 팔 토시로 닦거나 너무 더웠는지 물을 들이키는 이들도 목격됐다.

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나와 인근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쉬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더위를 식하기도 했다.

휴게공간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각종 음료수가 구비돼 있었지만 얼음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노동자 A(44)씨는 "마스크와 안전모까지 쓰고 작업하면 열기로 인해 어지러울 때가 많다"며 "날이 너무 더워 쉬고 싶을 때도 많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골목길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날 제주시 도남동 일대엔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미화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맞으며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다.

미화원 B(58)씨는 "너무 더울 땀 나무 그늘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한다"며 "너무 덥지만 돈을 벌

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온열질환자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6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체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온열질환 사전 차단을 위해 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수칙 이행과 함께 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화원의 경우 쿨토시, 아이스팩 등 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용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음·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폭염 시 행동수칙 등 매뉴얼이 담긴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 건너던 80대女 렌터카에 치여 숨겨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23분쯤 제주시에월을 봉성리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82)씨가 관광객 B(경기)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가스폭발 화재... 1명 다쳐

식당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3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연동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현장에 긴급출동해 이날 오후 1시40분 불을

안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로 가스를 교체하러 온 LPG 차량 운전자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한편 이날 화재로 인해 아연로 일대에 교통정체가 이뤄졌다. 강민성기자

차 몰다 마트 담벼락 '깡' 음주측정 거부 30대 입건

차를 몰다 마트 담벼락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쯤 차량을 운전하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마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손이

필요한 고용주들에게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불법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들의 모집은 현지 어플이나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취업을 중개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총 9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양도 인근 해상서 어선 충돌 1척 침몰

해경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6t급 어선 1척이 침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8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11km 해상에서 한림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20t·승선원 10명)와 제주선적 연안복합 어선 B호(6.67t·승선원 3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호가 전복돼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여 뒤인 3시52분쯤 침몰했다. B호 승선원들은 침몰 전

A호로 이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침몰 당시 B호에 2000ℓ의 경우가 저장돼 있어 해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방제정 등을 긴급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A호가 조업 중인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속도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효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균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EVER D.M | 코코리 |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 (분양예약)
- 가온식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 하강, 팔삭, 세마봉, 금귤, 당유자, 아나나스, 미나몬, 국내산 탕자목류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식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그랜드보청기

한카워맛이 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 상당 녹용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N/S 및 무료 청력검사

샵샵들 혼자 전화 주시면!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